

건보공단 단속 전담 사법경찰제 도입 시급

광주일보 공익캠페인 보험범죄 근절하자

<하> 집중단속 강력처벌 필요

우리나라 보험업계에서 광주는 요주의 지역이자 '보험 범죄의 온상'으로 꼽힌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이런 불명예를 씻기 위해 2016년부터 대대적으로 보험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감시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보험사기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11월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투입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보험사기 급증 집단을 선별해 교육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분야에 대해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험업계도 보험사기조사팀을 확대 개편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사기방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도 산업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화하는 탓에 단속에

광주 요주의 지역...2017년부터 특별단속 1000여건 적발
허위 보험금 즉시 반환 등 규정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를 먹고 있다는 게 수사 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 때 세계가 막막했던 서민들은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자신의 차량을 고의 교통사고에 이용해 보험금을 타냈다. 이 보험금으로 생계를 이어나간 경우도 많아 '생계형 보험사기'라는 말도 이때 첫 등장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보험사기 유형은 단기 카세어링(자동차 공유) 서비스 등을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고의 충돌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것이다. 자신의 몸은 하나도 손상되지 않더라도 한 뒤 보험료 할증 부담도 없이 보험금과 위로금만 챙겨가고 있다.

이렇게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와 함께 수사 당국도 범죄의 진화에 발 맞춰 강력한 단속과 감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에선 2017년부터 관계 기관들(광주경찰청, 금융감독원, 광주시,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보험사 특별조사팀 등)이 보험사기 전담팀을 구성해 보험범죄의 근거지로 지목되고 있는 일부 한방병원, 사무장병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펼쳐 1000건이 넘는 보험사기범죄를 적발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26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사기 범죄 적발 건수는 2016년 350건, 2017년 370건, 2018년 464건이며, 올해에는 8월까지 280건의 보험사기 범죄를 적발했다.

적발된 보험사기 피해금액도 2016년 84억원, 2017년 376억원, 2018년 174억원이며, 올해에는 8월까지 120억원에 이른다.

수사당국이 매년 집중단속과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데도 보험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단속을 강화할수록 범죄도 조직화·기업화·지능화되는 등 진화하기 때문이다. 현 법 체제도 진화하는 보험사기 수법을 따라가기에 역부족이라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제도 도입 등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가중처벌하는 등 의료계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법상 병원의 경우 보험사기로 최종 판결이 내려져도 동일 건물 내에서 명의만 변경하는 수법으로 재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병원만 폐업하고 명의를 바꿔 다시 보험사기를 이어가는 사례도 있다는 게 보험 업계의 설명이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허위 청구한 보험금 즉시 반환을 의무화하고, 보험사기가 발생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보험사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서부(충청·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 범죄를 이용할 경우 순간적인 이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의료사기 위험은 물론 전과자라도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4 달뜨기 04:09
해질 18:23 달질 17:45

우산 챙기세요

하리고 남해안과 동부 내륙 비오는 곳 있겠다.

광주	흐림	18/27	보성	흐리고한때비	16/24
목포	흐림	19/26	순천	흐리고한때비	19/26
여수	비	20/24	영광	흐림	17/27
나주	흐림	16/28	진도	흐림	17/26
완도	흐림	19/25	진주	흐림	17/28
구례	흐리고한때비	16/27	군산	흐림	17/27
강진	흐림	18/27	남원	흐리고한때비	16/27
해남	흐림	16/26	축산도	흐림	18/23
장성	흐림	16/2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	북~북동	0.5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북동	0.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1.0~2.0	북동~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동~남동	1.0~2.0	동~남동	1.0~2.0

◇생활지수

위험	☀
보통	☀
좋음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6:15	18:24	00:42	12:55
여수	01:45	13:54	07:54	20:21

◇주간 날씨

28(토)	29(일)	30(월)	10/1(화)	2(수)	3(목)	4(금)
☁	☁	☁	☁	☁	☁	☁
20/26	19/27	18/27	17/27	17/27	17/27	17/26



“일자리 없다”...졸이는 구직행렬

26일 호남대학교 잔디구장에서 열린 '제2회 광산구 청년일자리 페스티벌'에서 구직자들이 참여기업 부스에서 취업문의를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광산구청,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호남대가 주최하고 61개 기업이 참여해 진행됐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지역 사립학교

‘제식구 감싸기’ 징계 여전

광주지역 사립학교들이 교직원 징계수위를 자체적으로 경감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할 교육청에서 내리는 교직원 징계 처분을 사립학교에서 무시하는 사례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4건에 대한 징계를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했지만, 36건(34.6%)이 감경되거나 퇴직 불문으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사립법인들이 교육청의 징계수위보다 낮은 징계를 내려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전남지역 사립학교들은 교육청의 징계처분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전남도교육청은 27건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25건이 요구대로 이행됐거나 진행중이었다. 감경·불응 비율은 2건(7.4%)에 불과했다.

신경민 의원은 “올해 사학도 국·공립 교원에 준하는 징계 기준이 적용되는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엄격하게 적용돼 사학 비리로 무너진 교육신뢰가 하루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

광주에서 전국 첫 퀵서비스노조 출범

도로 위 안전사고, 생계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지역 오토바이 배달(퀵서비스)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출범한다.

광주시퀵서비스노동조합은 “27일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서 노조 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노조에는 광주지역 19개 퀵서비스업체와 배달대행업체 소속 직원

1300여명이 노조원으로 참여한다.

그동안 퀵서비스 종사자들은 특수고용직 형태로 근무하며 월급이 아닌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왔다. 배달을 1건이라도 더 많이해야 추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운행에 내몰리고, 업체 간 경쟁으로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할 때도 있었다는 게 노동조합측의 설명이다.

또 오토바이 정비나 안전장구에 지출되

는 비용도 모두 노동자의 몫이었다.

노조는 앞으로 4대 보험 혜택과 함께 근로기준법 적용, 오토바이 점검 등 안전의식 교육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음·난폭운전 등으로 최근 시민 사이에서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배달대행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도 정기 교육 등을 진행해 거리 질서를 회복할 계획이다.

박종덕 위원장은 “노조 설립을 계기로 노동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요구하고 노조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주말 오락가락 가을비...10도 이상 일교차

광주·전남지역에는 주말동안 가을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북상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지역에 주말인 27일과 28일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27일 오전 남해안에 비가 시작돼 낮에 전남내륙으로 확대된 후,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소강상태를 보이겠다고 예상했다 이어 28일도 남해안을 시

작으로 다시 비가 오고 낮에 내륙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28일까지 내리는 비의 예상 강수량은 5~40mm이며, 남해상에 집중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고, 낮 동안 햇볕에 의한 지표면 가열로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선대 제17대 총장 선거 사전 투표 시작

전임 총장 해임과 복귀 문제로 법적 다툼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조선대학교의 제17대 총장 선거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조선대 총장추천위원회는 26일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사전투표에 돌입, 이날 오전 9시부터 법과대학 모의법정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교직원과 학생 등의 투표가 진행됐다. 사전 투표는 27일까지 이어지며, 본 선거는 다음 달 1일 치러진다.

선거 결과는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합해 최종 당선자를 뽑을 예정이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 당일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치른다.

이와 함께 강동완 총장이 제기한 총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조만간 광주지법에서 결정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선거의 효력 유무가 결정될 수도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 1 **휘트니스센터,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공유오피스 사무실**
- 4 **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